

# 과거 냉전을 통한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전략 모색

김규호 (양명고)

## 목차

### 1. 서론

### 2. 분석

- (1) 미소 냉전체제
- (2) 미중의 패권경쟁
- (3) 미중 패권경쟁과 미소 패권경쟁의 공통점
- (4) 탈냉전기 한국과 냉전기 독일 중견국 전략

### 3. 결론

## 서론

최근 미중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등이 발생하면서 미·중 관계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과거 미소 냉전체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소 관계 속 미국의 존재, 두 사상의 대립, 아시아지역에서의 분쟁 그리고 분단국가의 존재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독일의 전략을 통해 한국의 전략을 구성한다면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속 한국은 큰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과거 미소 관계와 현재 미중 관계의 요인들을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국제 정서의 흐름을 예측해본다면 국제 정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과거 독일은 어떤 식으로 양강 체제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었는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전략을 구성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서술한다

지금까지의 미·중 관계를 예측하는 글들은 미국의 쇠퇴를 고려하더라도 전부 미국의 우세를 점치고 있으며 미국의 위치가 세계적 심적으로 일인자의 위치를 포함하여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라는 특성이 있기에 중국이 세계적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고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었다.<sup>1)</sup> 하지만 중국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이전 미소 체제와는 다른 여러 변수가 있기에 이를 무시하고 미소 냉전체제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입장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소 냉전체제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 또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미소 체제에서의 서동독이

1) 이지용 “연구 동향과 서평 21세기 세계질서와 미중 관계”

라는 분단국가의 존재와 비슷하게 남북한이라는 분단국가 존재한다. 이는 매우 비슷한 접점을 보이며 후에 미중 관계가 심화 된다면 남북한의 존재 가치 또한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입장에 속에서 지금까지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처지에 대해 견해를 밝힌 전문가들의 입장을 과거 미소 냉전체제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미소 냉전체제

과거 미소 냉전의 발발 원인은 어떠한 사건 년도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데올로기의 차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의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와 국가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냉전체제는 정치적 분할,

양대 군사 진영화, 미소 중심 권력체제, 이데올로기의 택일, 소 군 주권 국가의 미소 예속체제

총 5가지의 성격이다. 일단 미소 냉전체제는 세계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 경제적 체제 두 세계로 정치적 분할 하였고 두 세계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각각의 군사적 진영에 가입하고 핵무기라는 거대한 무기의 등장으로 이것은 더욱 심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미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세계 중 하나의 속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이데올로기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만 했으며 미국과 소련 두 거대한 피라미드에 속해야만 했다<sup>2)</sup> 냉전체제는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냉전을 심화시키고 가속한 역사적 사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서유럽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들의 재건을 위한 원조계획, 바로 마셜 계획이다. 이 계획의 핵심은 원조의 대상이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국가들이라는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원조의 대상은 한정되기에 여러 국가가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해야 했고 그 당시 소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과의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사회주의국가와 자유주의국가들에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냉전에서 우리가 이번 논문에 관해 주목해야 할 국가는 동서독과 남북한이다. 이 당시 독일은 통일되기 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써 책임을 처야만 했다. 이에 세계의 새로운 강자였던 미국과 소련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고 냉전으로 인한 대립으로 동독과 서독은 이념의 차이를 가지게 되며 완전히 분단되었다. 이 시기에 비슷하지만 다른 또 하나의 분단국가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데 바로 한국이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일제가 패전하고 항복 선언을 하면서 해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국은 스스로가 아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인한 해방이었기에 소련과 미국의 압박에 취약하였으며 이는 남북한의 분단을

2) 리영희 「냉전의 역사와 전개」(우상 1977년)

넘어선 6·25전쟁이라는 거대한 아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두 분단국가의 발단은 미소 냉전체제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근처임과 동시에 중국의 바로 아래 있는 지정학적 위치이며 이는 후에 서술할 미중 패권전쟁에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동서독의 위치는 동유럽 쪽 해당하며 이는 당시 이데올로기의 갈등 경계 표시를 한단 철의 장막 핵심 부였기에 냉전 시대에서 중요한 지점이었기에 이 두 분단국가에서의 사건은 냉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였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독일의 통일 시기인데 구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베를린 장벽이야말로 공산주의의 좌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라고<sup>3)</sup> 이처럼 베를린 장벽은 당시 공산주의를 상징하였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즉 공산주의 붕괴를 의미하였고 이 붕괴는 결국 당시 흔들리던 소련의 붕괴에도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냉전체제는 몰타회담 공식전인 냉전의 종식을 알리고 소련의 붕괴를 끝으로 냉전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 구술한 냉전의 과정은 뒤에 후술할 미중 패권경쟁에서와 비슷한 점을 보이게 되는데 과거 미소 냉전의 특징을 기억하며 미중의 패권경쟁을 살펴보자

## 미중의 패권경쟁

중국은 과거 노동력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에 의존하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립은 물론이며 오히려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해졌으며 미국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sup>4)</sup> 실제로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보유량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1조 952억 달러로 미국 국채 보유량으로 일본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sup>5)</sup> 중국의 경제 분야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군사, 외교 분야에서도 이미 영향력을 끼치고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이다. 이미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은 미국의 영향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준다. 이렇듯 중국은 단기간에 미국의 위치에 근접했으며 결국 미중의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많은 분야에서의 경쟁이 일어났다. 탈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의 미소 냉전 시대가 2000년대에 새로운 국가 중국이 한 번 더 미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달한 것이다

중국이 힘을 드러낸 이후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해왔으며 이러한 견제는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국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밀접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 견제, 중국의 무역에 제재를 거는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한 직접적 견제를 해왔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은 중국의 존재를 꺼리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미중의 관계는 세계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측하는 많은 학자 또한 분석하고 논문을 제시해왔다 미국의 세기는 지속할 것이라는 주장, 중국이 분명히 발전하기는 했

3) 1963년 6월 26일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연설 중

4) 박병광. (2010).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6(2), 35-62.

5) 이승호 (2021). “국채 슬금슬금 사들이는 중국…일본에 내준 ‘보유국 1위’ 되찾나” 중앙일보.

지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중국이 하드파워(hard power)로 대변되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일 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soft power) 또한 갖추어야 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지금은 반쪽짜리 강대국이라는 주장 등이 존재<sup>6)</sup>하며 미국과 중국의 행방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거 미소 냉전 체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은 양강 체제를 거치며 살아왔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발생한 미중의 패권전쟁에서 전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 미중과 미소의 공통점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우리는 과거 미소 냉전체제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두 양강 체제 시대에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통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사상의 차이점, 지정학적 위치, 분단국가의 존재이다. 미국의 과거 소련과 대척점을 이루었고 이번에 중국과 대척점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이며 중국은 그와 다른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이기에 미국과 과거 대척점을 이루었던 소련처럼 사상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비슷한데 미국은 아시아대륙(중국과 소련)에서 경쟁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의 핵심인 독일(미소 냉전 시기)과 한국이라는 분단국가의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중 패권전쟁의 여러 속성을 볼 수 있으며 또는 과거의 미소 냉전으로부터 미중 패권전쟁의 시나리오를 예측해볼 수 있다.

과거 미소 냉전체제는 두 사상의 차이에서 자본주의가 더욱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했기에 결국 미국의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 달리 경제적인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은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과거와 같은 경제적 우위로 이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대척점을 보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차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과거 두 사상에서의 승부는 어느 한쪽이 분명한 약세 또는 강세를 드러내 두 사상의 운명을 갈랐다. 그러기에 필자는 이번에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둘 중 하나가 지속하는 싸움에서 한쪽에서 한계를 드러내리라 예측한다. 과거 4대 문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적 사상이 시대의 발전에 뒤처지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사상 자체가 무너져왔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로부터 어느 한쪽이 한계를 드러내 무너지리라 예측하고 사상이 무너짐에 따라 미중의 패권전쟁 또한 가라앉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소련과 중국은 둘 다 미국과 과거 또는 현재에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에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왜 미국과 아시아지역 국가는 대립하게 되는 거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이해관계 또는 다른 이유로 대립이 구성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지리적 요건으로만 따져보자면 일단 아시아가 유럽 대륙보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먼 위치에 존재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추론할 수 있다. 과거 교통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대륙과 대륙의 교류는 매우 힘든 상황이

6) 이지용 (2015). '21세기 세계질서와 미·중 관계 연구 동향' 국립외교원

었다가 그리고 지리적으로 멀었기에 교류가 적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유럽 국가들과 과거 영국에서부터 기원을 두고 있는 미국은 서로에게 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맺어져 있는 상태였고 서로가 충분히 인식되는 국가라는 점은 서로에게 영향력 행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한 국가가 패권국이 된다면 그 패권국과 동맹을 형성하거나 친숙한 존재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쉬워진다. 즉 미국과 유럽은 과거에서의 이해관계와 지리적 요건으로 충분히 서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아시아는 유럽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아시아를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면 일단 과거 동아시아는 서양의 문화와는 매우 다른 편이었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달랐으며 과거에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던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의 무역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이 우선시되었고 교통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까닭에 세상에 대한 인식이 좁아 서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서아시아의 경우에는 동아시아보다 유럽과 가까워 유럽과의 교류는 있는 편이었고 어느 정도 인식 가능이라고 보지만 미국은 일단 유럽국가에 아닌 아메리카지역에 위치하였기에 마찬가지로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다. 그렇기에 필자는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와 미국이 대립을 이루는 구조를 지정학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아시아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구조로서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고 이해관계가 충분치 않아 대립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교통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지리적인 요소들은 배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리적인 요건은 중요하다 발생 원인을 따져보는 것 외에도 어떤 주변국 있는가에 대한 속성 하나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이를 과거 미소 냉전 시기를 통해 생각해보자면 친소련권 국가들이 친미국 쪽으로 돌아서거나 자본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소련이 힘을 잃어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느 한쪽의 주변국들이 어떠한 태세를 취하는가에 따라 미중의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주변국들의 행동 중심에는 과거 서로 인식 관계를 통한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지리적인 요건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주변국 중 본문에서 핵심이라고 보는 분단국가 한국이 있다.

탈냉전기의 한국과 냉전기의 독일은 큰 공통점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총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는 과거 미소 냉전의 원인으로 나라가 이분화된 분단국가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이다. 일단 독일은 소련과 서유럽의 사이에 있기에 과거 서동독 시절에 소련과 가까운 동독은 공산주의를 서방 정책을 주도 하도 서유럽과 가까이 있던 서독은 자유주의를 채택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가까이 있는 북한은 중국과 손을 잡았으며 태평양을 사이로 미국에 두고 있으며 미국의 가장 큰 동맹국인 일본에 더 가까이에 있는 남한은 미국과 동맹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은 현재 미중의 패권전쟁 속 한국에 과거 독일의 중견국 전략은 큰 의미가 있고 한국은 과거 독일의 중견국 전략을 기반으로 외교전략을 구성해야 한다.

## 탈냉전기 한국과 냉전기 독일 중견국 전략

과거 독일의 통일시점은 1980년대 소련과 미국의 긴장 완화 시기였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절정은 맞이하며 그 이후로 국제사회는 큰 절정을 맞이한다.<sup>7)</sup>이처럼 과거 독일 통일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암시하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과거 독일의 통일처럼 현재 한국의 통일도 국제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냉전기 한국과 냉전기 독일은 비슷한 위치에 있기에 한국의 통일이 미중 패권경쟁에 종지부를 지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수년간 한국의 선택이 향후 100년간 한국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하는 주장<sup>8)</sup>뿐만 아니라 수년간 한국의 선택은 향후 100년간의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냉전기 독일과 탈냉전기 한국은 명백히 하드파워(hard power)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단 지금의 한국과 과거 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상황은 경제력, 영향력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막강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지금의 한국은 G20 국가로서 어느 정도 경제력과 영향력을 갖춘 국가로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적 전략이 어떻게 지금의 한국의 중견국 전략에 의의를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독일의 분단국가로서 전략을 통한 통일은 단순히 경제력과 영향력을 넘어서 지금 남북으로 분열돼있는 한국에게는 큰 의미를 준다.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과거 독일의 전략들을 살펴보자면 과거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구분되어있던 시기 서독은 친서방정책을 계속 추진하였고 1955년 5월 5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친서방으로 돌아섰으며 같은 해 5월 14일 동독도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양 독일의 관계는 분열되며 그리고 이후 미소 냉전은 심화하여감에 따라 베를린은 핵과 같은 군사무장을 등으로 냉전의 심화에 중심이 되었다. 그 당시 독일은 독일의 문제 해결에 직접 행동하기 보다는 미소 양국의 외교적 구도에서 독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았다.<sup>9)</sup> 그리고 동독이 공산화가 된 이후 1945년부터 1961년까지 300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피난해왔다. 결국, 피난민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으며 그리고 이 시기에 냉전 시기 긴장은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었다가 그리고 이후 서독은 냉전 시 기속 국내문제 해결을 먼저 처리하고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과거 의존적인 태도와 달리 직접 행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소련은 군축문제와 국내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서방세계와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서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방정책 중앙 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화해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서방세계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소련이 관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했고 결국 서독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서동독 통일의 가장 큰 방해물을 해결하였고

7) 강선주 (2014) 교수중견국 외교전략: MIKTA의 외연(外緣) 확장을 중심으로\*

8)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직무대리 (2019).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 간국’ 외교전략 모색”

9) 박해식 (1999). 냉전 시대 독일과 소련의 외교 관계. 한국 동북아논총(12), 127-148

결국 소련이 독일 통일을 지지하고 독일은 마침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통일을 맞이하였다.<sup>10)</sup>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적극적인 태도와 동방정책이 핵심이었다. 과거 친서방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가 틀어진 국가들과의 교류를 회피하지 않았고 시기상 소련의 상황도 크게 이바지했겠지만, 서독이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소련의 신뢰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지금까지의 외교전략의 방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방향은 세계 20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데에 유용하였다가 그리고 자신의 발전상태와 국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견국 외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sup>11)</sup> 하지만 한국의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 즉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 안정뿐만 아니라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앞서 독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과거 미국과 소련을 상징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을 상징하는 각 진영이 대립하는 분단국가의 통일은 국제사회의 큰 변화를 초래하거나 큰 변화를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렇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현재 중견국 외교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후에도 꾸준히 강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외교전략뿐만 아니라 미중의 패권전쟁 속 양쪽의 교집합 속에서의 주도적인 전략을 선택해야만 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깝고 미국과는 오랜 동맹을 유지해왔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미중의 패권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꾸준히 주목받아왔고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2011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중국은 한국 문제 개입하려 하려 할 것이고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를 노력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sup>12)</sup> 하지만 이 말은 미국과 중국도 한국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있기에 이러한 미중의 처지를 이해한다면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과거 독일이 소련의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방정책을 추진한 것처럼 한국 또한 이러한 미중의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한국은 미중 경쟁 시대 전략의 방향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북한 외교전략과 주도적인 미중 쌍방향 정책이다. 북한과의 외교전략은 중견국 전략으로서의 전략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고수해왔던 한반도 안정 정책의 의미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주도적인 미중 쌍방향 정책은 과거 냉전 초반의 독일 사례처럼 둘 사이에서의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의 입지는 약해지고 한국은 제2의 동독이 될 수밖에 없으며 과거 서독처럼 주도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개척한다면

10) 박해식 (1999). 냉전 시대 독일과 소련의 외교 관계. 한국 동북아논총(12), 127-148

11) 강선주 (2014). 교수중견국 외교전략: MIKTA의 외연(外緣) 확장을 중심으로\*

12) 중앙일보-존 미어샤이머 교수 인터뷰 “한국, 폴란드처럼 지정학 위치 최악, 미중 갈등 대비를”, 2011.10.10.-고수석 통일문화 연구위원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못지않은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 결론

과거 미소 냉전과 현재 미·중패권전쟁을 동일 선상으로 두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현재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 손꼽히는 러시아의 존재와 과거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한 양강구도와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평화를 기반으로 시작된 양강구도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 등 분명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현재 패권전쟁은 미소 냉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그것 또한 반박할 수는 없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변수마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략도 세울 수 없게 된다. 변수는 새로운 변수를 낳기에 완벽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의 존재 목적은 과거로부터의 경험으로 한국에 최선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소 냉전과 현재 패권전쟁을 비교하고 비슷한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현재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임은 분명하다. 과거 미소 냉전은 어느 한쪽의 사상이 국가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차이가 심했기에 공산주의가 도태되며 소련은 무너졌다. 이번에는 국가의 이익에 미치는 시장의 근본적인 사상이 같다면 국가정치에서의 사상이 핵심이 될 것이며 사상경쟁의 승패가 패권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와 미국이 대립을 이루는 구조를 지정학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아시아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구조로서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고 이해관계가 충분치 않아 대립이 발생하기에. 아무리 현재 교통기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점이더라도 지리적인 요소들은 배제할 수 없으며 여전히 지리적인 요건은 중요하다 발생원인을 따져보는 것 외에도 어떤 주변국 있는가에 대한 속성 하나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지리적인 요소 속에서 중요한 주변국 중 하나는 한국이며 한국의 외교전략은 앞으로 한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에 한국의 외교전략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외교전략은 두 가지로 중심 잡아야 하는데 하나는 중견국으로서의 전략과 한반도 안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북한 외교 정책과 미중 사이에서의 주도적인 교집합 외교 정책이다. 이를 과거 미소 냉전 시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단국가 독일의 외교전략을 참고하자면 독일은 과거 소련의 처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동방정책으로 통일을 끌어내며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결과를 표출해냈다. 그렇기에 한국 또한 미중 어느 하나도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근형 and 강병철. (2016).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신아시아, 23(2), 83-111.

연구 동향과 서평 21세기 세계질서와 미중 관계\_이지용  
3-1. 「냉전의 역사와 전개」(1977년 『우상』) 이영희

연구 동향과 서평 21세기 세계질서와 미중 관계\_이지용

1963년 6월 26일 당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연설 중  
중앙일보 이승호 기자 美 국채 슬금슬금 사들이는 중국…일본에 내준 ‘보유국 1위’ 되찾나

박병광. (2010).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16(2), 35-62.

중견국 외교전략: MIKTA의 외연(外緣) 확장을 중심으로\*(강 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 간국’ 외교전략 모색(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직무리)

박해식 (1999). 냉전 시대 독일과 소련의 외교 관계. 한국 동북아논총(12), 127-148

중견국 외교전략:MIKTA의 외연(外緣) 확장을 중심으로\*(강 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인터뷰 “한국, 폴란드처럼 지정학 위치 최악, 미중 갈등 대비를” (중앙일보, 2011.10.10.)